

Vol. 108

2023년 07월
해양환경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괄 박한선 실장
- 감 수 이연경 연구위원
- 발행인 김종덕 원장
- 발행처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 E L . 051-797-4800
- F A X . 051-797-48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IMO, 중기 결합조치 채택을 위한 종합영향평가 수행 및 특별 MEPC 개최 예정

2023 IMO GHG 전략과 중장기 조치 개발 작업계획, 상세일정 확정 요구되어 옴

- ▶ IMO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에 따라 제76차 MEPC는 최종 3단계의 상세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의 중장기 조치 개발을 위한 작업계획¹⁾을 수립함^{a)}
 - 해당 계획은 총 3단계로서 1단계는 중장기 조치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의 범위와 이행 비교(2021년 봄~2022년 봄), 2단계는 후보조치들의 우선순위 선정(2022년 봄~2023년 봄), 3단계는 종합영향평가와 기존 협약 개정을 통한 조치 채택으로 구분됨
 -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3단계 상세일정을 개정전략(2023 IMO GHG 전략)과 연계하여 목표 시점을 확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미정된 상태였음
- ▶ '2023 IMO GHG 전략 섹션 6의 후속조치(Follow-up actions)'는 중기 결합조치 채택을 목표로 중기 결합조치 개발과 종합영향평가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확정이 요구되었음
 - MEPC 회원국들은 2018년 초기전략 채택 당시 IMO GHG 전략을 5년마다 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2023 IMO GHG 전략 이후 5년 뒤인 '2028 IMO GHG 전략'을 채택할 예정임
 - 2023 IMO GHG 전략은 2028 IMO GHG 전략 채택 전까지 중기 결합조치 개발과 종합영향평가 수행을 주요 마일스톤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시점과 결과물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 모든 국제해운 감축 후보조치는 반드시 종합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한 이후에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²⁾, 이 부분을 고려해 대한민국은 과거 단기조치 채택과정에서의 교훈점을 바탕으로 종합영향평가 절차 개정과 2023 IMO GHG 전략 채택을 위한 의제문서를 제출하고 회의를 주도함

대한민국, 중기 결합조치 채택을 위한 마일스톤 적극적으로 제안

- ▶ 대한민국은 2022년 12월 제13차 ISWG-GHG에 중기조치의 원활한 채택을 위해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종합영향평가 절차(안)를 제안한 바 있음^{b)}
 - 2019년 제74차 MEPC에서 승인한 종합영향평가 절차(MEPC.1/Circ.885)는 초기영향평가부터 종합영향평가까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고려요소와 적용가능한 방법론뿐만 아니라 영향평가를 통해 군소도서국가 및 저개발도상국에 미치는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파악을 강조함

1) 중장기 조치 개발 작업계획: Work plan for development of mid- and long-term measure as a follow-up of the initial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MEPC 76/15/Add.2, Annex 14), 3단계는 영향평가 및 조치 채택을 하는 과정이며 상세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음

2) MEPC.1/Circ.885 및 MEPC.1/Circ.885/Rev.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영향평가인 4단계인 종합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부족한 관계로 단기 조치 종합영향평가는 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영향평가를 위한 6개의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과업은 수행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로 조치가 채택됨
- 대한민국은 제13차 ISWG-GHG에서 종합영향평가 개정을 위한 어젠다에 중기조치를 위한 종합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의제문서(ISWG-GHG 13/2)를 단독으로 제출하여 주목을 받음

▶ 제15차 ISWG-GHG에는 '2023 IMO GHG 전략의 후속조치(Follow-up actions)'에 IMO 승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반영을 위한 제5차 IMO GHG 연구와 중기조치 종합영향평가 병행 제안^{c)}

- 대한민국은 단기조치 종합영향평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제4차 IMO GHG 연구결과를 고려하였으며 교훈점 학습(Lessons-Learned Exercise) 결과 IMO 차원의 데이터 및 시나리오 활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근거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5차 IMO GHG 연구 진행과 그것을 반영한 종합영향평가 수행을 제안하는 의제문서(ISWG-GHG 15/2/6)를 제출함
- 더불어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 IMO GHG 전략의 후속조치에 중기조치 2025년 채택, 2027년 발효와 종합영향평가 및 GHG 연구 수행에 대한 목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안

〈그림 1〉 대한민국이 제출한 2023 IMO GHG 전략의 후속조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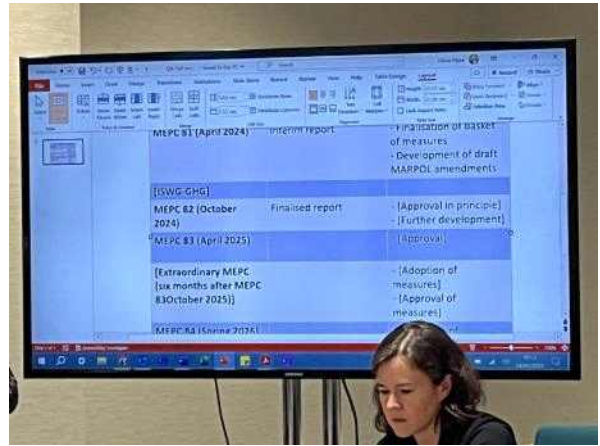
Table 1: Proposal for follow-up actions

Target dates	Milestones
MEPC 80 (Summer 2023)	- Adoption of the 2023 IMO GHG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u>Initiation of Phase III of the Workplan for the development of mid- and long-term measures</u>
MEPC 81 (Spring 2024)	<u>Initiation of the Fifth IMO GHG Study using data from 2018-2023</u> <u>Initiation of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for mid-term measures</u>
MEPC 82 (Autumn 2024)	<u>Submission of interim report of the Fifth IMO GHG Study</u>
MEPC 83 (Summer 2025)	<u>Publication of Fifth IMO GHG Study for consideration by MEPC 83</u> <u>Report of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for mid-term measures with a view to entry into force from 1 January 2027</u> <u>Adoption of mid-term measures</u> - Review of the short-term measure to be completed by 1 January 2026
...	
MEPC 86 (Summer 2027)	Initiation of the review of the 2023 IMO GHG Strategy
MEPC 88 (Autumn 2028)	Finalization of the review of the 2023 IMO GHG Strategy with a view to adoption of the 2028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자료 : IMO, ISWG-GHG 15/2/6

- ▶ 회원국들은 개정전략의 후속조치(Follow-up actions) 합의를 합의하기 위해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례적인 특별(Extra-ordinary) MEPC 개최와 중간-최종보고서 검토 과정을 포함한 일정 합의
- 제80차 MEPC에서 중기 결함조치의 개발과 종합영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는 선진국과 중기 결함조치의 경제적 요소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종합영향평가를 시작할 수 없다는 개도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개정 전략의 후속조치가 계속해서 합의되지 못한 관계로 공식회의에 추가적인 비공식회의까지 밤늦게 개최됨

〈그림 2〉 중기조치 채택 일정을 포함한 후속조치 개정을 위한 회원국 비공식회의 모습



자료 : 저자 작성(현지회의 참석)

주: 본회의에서 의견이 합의되지 못해 공식적인 회의시간 외 추가적인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 간 논의를 이어갔으며, 대한민국이 제안한 상세일정 자료를 간사(영국 대표단)가 모니터에 올려 회원국들이 검토하는 모습

- IMO 사무국의 해양환경국(MED) 참여로 제83차 MEPC(2025년 봄)에서 조치를 승인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후 특별 MEPC를 개최하여 조치를 승인함으로써 2027년에 발효하는 것으로 타협함^{d)}

〈그림 3〉 최종 결정된 중기 결함조치를 위한 마일스톤

Target dates	Milestones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of the basket of candidate mid-term measures	Development of candidate mid-term measures	Other milestones
MEPC 80 (Summer 2023)	Initiation of CIA	Initiate Phase III of the Work Plan on the development of mid-term measures	
MEPC 81 (Spring 2024)	Interim report	Finalization of basket of measures	
MEPC 82 (Autumn 2024)	Finalized report		
MEPC 83 (Spring 2025)		Approval of measures	Review of the short-term measure to be completed by 1 January 2026
Extraordinary one or two-day MEPC (six months after MEPC 83 in Autumn 2025)		Adoption of measures	
MEPC 84 (Spring 2026)			
MEPC 85 (Autumn 2026)			
16 months after adoption (2027)		Entry into force of measures	

자료 : Resolution MEPC.377(80)

■ 중기 결합조치 채택을 위한 종합영향평가, 단순 절차가 아닌 정책적 활용 필요

- ▶ 대한민국은 제80차 MEPC까지 제출한 의제문서들과 적극적인 회의 대응 이미지를 토대로 대내외적으로 국익 실효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중기 결합조치의 종합영향평가에 대응해야
 - IMO의 첫 경제적 조치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중기 결합조치 중 경제적 요소는 향후 1차 종합영향평가를 통해 결정될 예정(MEPC 81 중간보고서 제출)
 - 대한민국은 단기조치 종합영향평가 운영위원회 참여 경험을 토대로 제13차, 제14차, 제15차 ISWG-GHG과 제79차, 제80차 MEPC에 관련 의제문서 다수 제출과 적극적인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 입지를 견고히 함
 - 대외적으로는 신뢰성 있는 종합영향평가 결과가 도출되어야 원활하게 중기 결합조치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활한 중기 결합조치 채택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가속화하므로 제도의 세부사항 제안
 - 대내적으로는 중기 결합조치의 종합영향평가 과업 수행과 결과 검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향후 정책·기술·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영향평가 관련 의제문서 개발과 운영위원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 2025년 중기 결합조치 승인 이후에도 2030년까지 추가적인 중기조치 개발에 국제적 협력 필요
 - 2023 IMO GHG 전략에 따라 2025년 중기 결합조치 이후에도 중기조치 개발은 계속될 예정이며, 대한민국 단독의 조치 개발보다는 다른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개발에 관한 노력이 요구됨
 - 국내 산·학·연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중기 결합조치를 위한 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한 1차, 2차 종합영향평가 과업 수행과 추가적인 중장기 조치 개발에 적극적인 의견 피력과 타 회원국과의 협력 필요

■ 협약 개정안 채택 이전에 ^{IMO 중기조치} 시장기반조치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 ▶ EEXI 및 CII 등 기술적 및 운항적 조치에 추가하여 2027년 5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인 중기조치에 대한 제도 마련에 정부는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전사적으로 대응해야
 - 향후 논의될 결합조치에 대한 연구, 분석, 협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대응팀(TF)를 시급히 마련하여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 요구
 - 해운협회는 기술적 및 운항적 조치에 추가적으로 발효될 중기조치에 대하여 중소 선사들의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간담회 등을 통해 선사별 대응책 마련에 노력할 것
 - 정부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를 시작으로 중기조치 채택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협상대응팀을 구성하여 해운회사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반영한 국가 훈령(안)을 마련할 것

- 또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과 더불어 관련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의장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보람 전문연구원, 박한선 연구위원, 정민지 연구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zzz3678@kmi.re.kr/051-797-4640, hspark@kmi.re.kr/051-797-4627, jminj@kmi.re.kr/051-797-4644)

참고 자료

- a) IMO, MEPC 76/15/Add.2/Annex 2, WORK PLAN FOR DEVELOPMENT OF MID- AND LONG-TERM MEASURES AS A FOLLOW-UP OF THE INITIAL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 b) IMO, ISWG-GHG 13/2, Procedural improvements to the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of IMO GHG reduction measures
- c) IMO, ISWG-GHG 15/2/6, Further proposal on the draft 2023 IMO GHG Strategy – 2050 ambition and follow-up actions
- d) RESOLUTION MEPC.377(80), 2023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